

김지하 시에 나타난 ‘검은 산’의 생명 의식*

—『검은 산 하얀 방』을 중심으로—

권석순(강원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화해의 도정으로서의 생명성 |
| 2.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 생명성 | 5. 맺음말 |
| 3. 실존에 내재된 생명성 | |

1. 머리말

김지하의 시집 『검은 산 하얀 방』¹⁾에서 ‘검은 산’은 두타산(頭陀山)²⁾을 지칭하며, ‘하얀 방’은 해남의 백방포(白房浦)를 지칭한다. 본고는 이 시집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에 실린 시들을 대상³⁾으로 하여 그 시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부에 실린 시편들은 김지하가 1980년 출옥한 후 무릉계곡(武陵溪谷)⁴⁾에 머무를 때의 체험이 녹아져 있으며, 시대적 상황과 시인의 억눌린 정신적 궤적을 담고 있다. 이 시집은 김지하의 구술에 의해 그의 아내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945).

- 1) 김지하, 『검은 산 하얀 방』, 분도출판사, 1986. 이하 『검은 산 1』로 표기하기로 한다.
- 2) 두타산(頭陀山)은 백두대간의 줄기에 자리 잡은 산으로 동서간의 분수령을 이루면서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에 위치한다.
- 3) 『검은 산 하얀 방』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의 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받아 쓴⁵⁾ 작품집으로, 그는 1994년 『검은 산 하얀 방』을 재출간⁶⁾하면서, 이 시집에 애착을 보였다.⁷⁾ 뿐만 아니라, 두타산 무릉계곡은 김지하가 우리 시대의 수난기에 포착한 공간으로 다른 계곡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⁸⁾

1970년 『사상계』에 실린 김지하의 담시(譚詩) 「오적」은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필화사건이었고, 구체적인 역사와 삶을 당당하게 문학으로 끌어들이는 거사였다. 김지하는 정치적 투쟁의 선봉이 되어,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중의 인권을 살리고자 했고, 그것을 시로 풀어내어 당대에 있어 문학의 힘을 실쳤했다. 김지하가 두타산 무

연번	제목	수록면수	연번	제목	수록면수
01	화살내	25	08	고사목	39
02	피소	26-27	09	두타산	41
03	쇠부처굴	28-29	10	용추다리	43
04	호랑바우	30-31	11	윗용추	44-45
05	아랫쏘	33	12	너럭바위 1	46-47
06	비리내골	34-35	13	너럭바위 2	49
07	문간재	36-37			

- 4) 두타산의 계곡은 산수의 풍경이 중국 고사에 나오는 무릉도원과 같다 하여 무릉계곡이라고 부르며, 소금강이라고도 한다. 무릉계곡은 1977년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명승 제37호로 지정되었다.
- 5) 김지하는 머리글에서 “.....마치 내가 아닌 그 누군가가 내 속에서 불러 주는 듯한 소리가 있어 그대로, 취한 듯 정신 잃은 듯 떠오르는 그대로 구슬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그걸 받아냈다. 그리고 일체 수정·가필·추고하지 않았다. 형식 문제, 곧 가락이나 장단, 말의 생동성 따위 나의 평소의 관심사는 일단 제쳐 두기로 했다. 그 소리 속에서 움직이는 종잡을 수 없는 어둡고 비통한 흔들림과 눈부신 흰 빛의 섬세한 떨림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이것이 ‘검은 산’과 ‘하얀 방’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검은 산 1』, 10쪽 참조.
- 6) 김지하, 『검은 산 하얀 방』, 솔출판사, 1994. 이하 『검은 산 2』로 표기하기로 한다.
- 7) 김지하는 1994년 12월에 재출간한 『검은 산 2』의 자서(自序)에서 “『검은 산 하얀 방』에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허나 내겐 이 시집이 매듭 같고 웅이 같은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집에 애착을 드러내었다. 『검은 산 2』, 3쪽.
- 8) 김인환, 「작은 것의 소중함」, 『검은 산 2』, 95-96쪽 참조.

릉계곡을 소재로 한 시집 『검은 산 1』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자행되었던 죽임의 역사를 포착하여 그것을 시로 풀어내었고, 그 시편들은 아나키즘(Anarchism)⁹⁾을 바탕으로 생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인간은 모든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당한 권력이 모두 사라진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아나키즘이기 때문이다.¹⁰⁾ 김지하는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감지한 '죽임'의 역사가 바로 모든 지배와 권위, 권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간파하고 있다.

김지하는 1964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가담하여 첫 투옥되었고, 출옥 후 재투옥을 거듭하다가 1980년 12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이 후, 그는 기독교사상·미륵사상·화염사상·선종(禪宗)철학 등의 여러 사상들을 재해석하여 독특한 생명사상을 펼치면서, 자신의 글쓰기에다 접목시키고 있다. 특히 김지하의 『검은 산 1』에서는 두타산의 정체성(正體性)을 드러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체성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과 그와 같은 개인의 동질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이다. 나아가 사람이 자라고 발전함에 따라 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감인 동시에, 그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하나가 되는 존재의 공동체 감각을 가진 친근감이라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정체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김지하 시인에게 존재하는

9) “아나키즘(Anarchism)이란 말 자체는 지배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고대 그리스 말 anachos에서 나왔다. 그 말이 무지배(無支配)를 뜻하다 보니 지배의 보편적인 주체가 정부인만큼 그것을 일본식으로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박홍규, 『아나키즘 이야기』, 이학사, 2004, 46쪽.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나키스트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자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자연 질서 자체와 일치한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즉 아나키를 자연 상태라고 해석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독립, 평등, 자기 충족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위의 책, 184쪽.

10) 위의 책, 47쪽.

11) Erik H. Erikson,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1986, 183쪽.
Erik H. Erikson, *Identity : Dimension of a New Identity*, New York : W. W. Noryon and Company, Inc., 1974, 27쪽 참조.

연속성·단일성·독자성·불변성이 두타산 무릉계곡의 특수성과 동궐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심상에 놓인 두타산 무릉계곡은 자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시공(時空)의 형식 및 시간적·공간적 인식의 방법이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김지하는 두타산을 최근에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탈근대적 윤리로서의 ‘생태철학(ecosophy)’보다는 ‘공생생활(共生生活 symbiosis, mutualism)’의 지향점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생태철학은 환경 윤리의 “생태학적 형이상학을 세우기 위해 위기를 반성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생태학의 철학적 이해의 틀을 제시”¹²⁾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공생생활은 원형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모든 자연계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공생적 관계에 있음을 드러낸다.¹³⁾ 즉, 모든 자연계가 여러 면에서 크고 작은 관계를 이루며 상호간에서 서로 이익을 나누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김지하는 두타산을 소재로, 자연과 인간간의 화해의 도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에 실린 김지하의 시편들의 시적 정황이 유사하고, 같은 어조로 노래하고 있어 시적 의미를 도출해 내기란 그리 쉬운 편은 아니다. 그러나 본고가 주목한 것은, 두타산을 소재로 창작한 김지하의 『검은 산 1』 제2부에 실린 시편들의 논의가 한국문학장에서 전무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김지하가 지리적인 공간적 범주로 창작한 두타산은 한국문학장 속에서 가장 소외 지역인 강원영동지역¹⁴⁾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김지하는 1981년에 동해시에 거주했던 시인으로, 두타산 무릉계곡을 지역문학장의 시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¹⁵⁾ 지역문학은 지역

12)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244쪽.

13) 위의 책, 21쪽 참조.

14) 남기택, 「생명권력 시대의 생태시론」, 『비평문학』 30호, 한국비평문학회, 2008, 22쪽.

15) 두타산을 소재로 문학적 특성을 고찰한 논문은 「두타산의 공간화 전략」이 유일하다. 이 논문은, 동해·삼척 지역시인들의 시편들 속에 영동남부 지역민들에게 모산(母山)으로 숭상되는 두타산의 특성이 ‘무시간성의 초월적 공간’, ‘현실지향의 존재론적 공간’, ‘내면 치유의 생성론적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민들의 구체적 삶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문학에 대한 저항문학으로서의 정치성을 띠는 점에서 소수자의 문학이다.¹⁶⁾ 그러므로 중앙문학으로부터의 탈영토화를 실천하여 새로운 문학의 영토를 개척해 나간 점¹⁷⁾에서도 김지하의 시편들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시편들 속에 녹아 있는 김지하의 내면의식을 생명의 양태에 두고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그의 시를 통해 김지하의 시론의 정체를 추론하고 시인의 발상법과 세계관을 살펴보려고 한다. 김지하에게 있어서 두타산은 객관적 현상이나 외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영감에 의해 내면화되면서 그 공간을 형성하는 구성 인자의 총체적인 접근으로 내밀화하였기 때문이다.

2.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 생명성

김지하는 독재시대에 민주투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죽음'과 '죽임'이라는 실존의 극단을 체험한 그가 자신의 작품 속에 아나키즘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주지하듯이 아나키즘은 단순한 무정부주의, 폭력주의가 아니다. 또한 아나키즘은 국가주의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적 억압과 규제를 본래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 새로운 국가주의 모델을 상징한다. '아나키즘(Anarchism)' 혹은 '아나키(Anarchy)'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혁명 때였으며,¹⁸⁾ 아나키 사상이 우리

물론, 이 논문에서도 지역시인들의 작품 속에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성이 내재되었음은 확인하였지만, 그것은 김지하의 『검은 산 하얀 방』에 나타나는 '죽음'과 '죽임'에 대한 역사성과는 다른 양상이다. 예컨대, 김시래의 시 「두타산성」은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지역민들의 무관심을 고발한 작품일 따름이다. 권석순, 「두타산의 공간화 전략」, 『비평문학』 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27-48쪽 참조.

16) 이형권, 「지역문학의 탈식민성과 글로컬리즘 : 대전 - 충남 문학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2호, 어문연구학회, 2006, 309쪽.

17) 위의 글, 같은 쪽.

나라에 소개된 시기도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의 고통을 당하던 1920년대 초였다. 당시 고착 상태에 빠져있던 민족주의적 독립 운동에 활로를 열고자 한 사상이 아나키즘이었으며, 지배와 피지배라는 아나키즘적 현실인식의 작품이 나온 것도 이때이다.¹⁹⁾

물론, 우리나라 아나키즘 운동이 일본의 탄압에서 시작되어 정치사회 운동으로 그 맥을 이어 왔지만, 문학에서도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간과할 수 없다.²⁰⁾ 이것은 아나키즘 사상이 갖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인도주의적 정신이 문학 영역에서 그 특성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나키즘은 정부·국가로부터의 탈주를 넘어 모든 권위와 그로 인한 폐해들에 저항하는 실천적 개념이다.²¹⁾ 김지하가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자행된 죽음의 역사, 그 폐해를 접한 것은 1981년이다. 두타산 무릉계곡은 임진왜란 때 함경도 안변에서 후퇴하는 왜병의 주력부대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3일간의 혈전 끝에 두타산 무릉계곡은 함락당하고 마는데, 당시 왜병들은 생존했던 의병과 노약자들마저 무참히 살육하였다.²²⁾ 김지하는 참혹하게 죽은 이들을 위한 진혼곡을 단 한 줄이라도 써야겠다는 강박관념으로 '검은 산'에 나오는 시편들을 창작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소리들, 이 모든 말, 말, 말들은 과연 초혼인가, 진혼인가? 불림인가 살풀이인가?

과연 이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찬 저주와 살(煞)을 풀어 줄 힘이 있는가? 불림은 동강나 갈라지고 서로 헤어지고 흩어지고 조각 조각나 죽임당한 신명을 하나로 모아 불러내는 주문(呪文), 숨겨져 보이지 않는 신명을 깨우쳐 일으키는 불림은 그대로 곧 신명을 가르고 헤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여 죽이고 감

18)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22쪽.

19) 위의 책, 336쪽 참조.

20) 실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아나키즘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 신채호, 권구현, 김화산, 이항, 유서, 정래동 등은 문학분야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으며, 해방 후 아나키즘 운동을 선도했던 박노석, 이경순, 홍원, 홍두표도 그 정신적 정수를 문학적 형상으로 남기고 있다. 위의 책, 336-337쪽 참조.

21)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 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568쪽 참조.

22) 박성중 편, 『東海市 地名誌』(동해문화원), 학연문화사, 2000, 247쪽 참조.

추는 살을 없애는 일. 오늘 이 땅에 그 어떤 불림이 있어 조각난 채 숨어 잠자는 신명을 깨워 불러 모을 것인가? 오늘 이 땅에 그 어떤 놀이꾼이 있어 가득 찬 살을 없애는 신명의 사제가 될 것인가?

그 소리, 속으로부터 울려나오던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그 무엇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조짐인가? 이런 일들은 왜, 어째서, 무슨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²³⁾

김지하는 무릉계곡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시인이다. 인간의 생명은 필연과 우연의 결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죽음에 “왜, 어째서, 무슨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하고 반문이나 하듯 부당한 권력에 대하여 항변까지 한다. 심지어 「너력바위 1」에서는 “피쏘 너력바위 위에/ 아로새겨진/ 토포사! 토포사! 토포사!”라고, “토포사”²⁴⁾를 나열하면서, 그들에 의해서도 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죽었음을 고발하고 있다. 아나키즘은 강제로 만든 법보다 우수한 정의의 원리, 즉 우주의 자연적인 질서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평등과 공명의 원리가 실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²⁵⁾ 김지하가 부당한 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사회를 자신의 시 속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자연적인 질서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 오른팔을 호랑가시나무라고 불러라
내 왼팔을 사자봉 벼락바위라고 불러라
있다면
내게 힘이 있다면
한 팔로 너희들의 죽음을 막고
한 팔로 너희들의 삶을 껴안아 주고 싶구나
무심한 구름이 용추다리 건너가는 내 발 밑에 와서
나의 힘 없음을 비웃는구나.

23) 『검은 산 1』, 13-14쪽 참조.

24) 시 「너력바위 1」 끝에 달린 주석은 다음과 같다.

“* 토포사(討捕使) : 이조 때의 토벌대장. 무릉계 너력바위에는 이 토포사의 이름들이 무수히 음각되어 있다.”

25) 손은진, 「열린 체계로서의 미학」, 『시와반시』 5호, 시와반시사, 1993, 101쪽.

-「용추다리」 전문

왜지 그럴 것 같애
 왜지 필요할 것 같애
 배낭에 금강경을 넣고 갔었다
 왜지 머리 뒤끝 섬뚱섬뚱 서는 것 같애
 지은 죄도 많고
 지을 죄도 많아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을 읽었는데
 문득 바람결에
 용성 스님의 금강경이
 날아가 붙은 바위를 보니
 바위에 새긴 글자
 범소유상 개시허망
 돌 하나 굴러 소리없이 물에 잠긴다.

-「윗용추다리」 전문

아나키즘 사상의 뿌리는 자연이다. 이러한 자연 개념은 아나키즘의 모든 교의, 즉 권위의 거부, 정부 및 국가에 대한 혐오, 상호부조, 소박성, 분산화, 정치에의 직접참여 등의 원천이자 기초가 되고 있다. 실제 자연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칙은 공정 형태의 발전을 이끌고 구조적으로 최대의 효력을 발휘시키려고 하는 균형과 조화의 원리일 것이다.²⁶⁾ 위의 시 「용추다리」에서 시적 자아가 힘이 없는 자신에 대하여 자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힘의 균형과 조화를 잃었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들이 자행한 죽임을 막기 위해 시적 자아는 “호랑가시나무”나 “사자봉 벼락바위”와 같이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한다. 호랑가시나무는 잎 뾰족한 끝에 붙은 딱딱한 가시가 마치 호랑이 발톱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사자 역시 몸집이 크고 기운이 세어 ‘백수(百獸)의 왕’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시 속에서는 힘으로 상징되고 있다.

26) 위의 글, 100-101쪽 참조.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의 표상이었던 김지하에게 있어서, 이러한 힘은 거대한 권력에 대항하는 힘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시적 자아는 권력 앞에 대적할 수 없어 죽음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러워 “내게 힘이 있다면” 하고 고백한다. 이는 자아가 살아있는 존재에게서 생명을 박탈당하고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극한까지 압박당하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체념에 떨어지지 않고 깨어 있으려는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고”, 또한 그들의 “삶을 꺼안아 주고 싶구나”하고 절규하는 속에서 올바른 자연적 법칙을 희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나키즘 사상의 이론적 정립을 꾀했던 크로포트킨 역시 자연적 법칙에 따른 사회구성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며, 이런 사회가 아나키즘 사회라고 밝힌 바 있다. 크로포트킨이 지향하는 사회는 바로 “자연의 생활 자체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은” 것으로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진화와 같이 “끊임없는 전진”²⁷⁾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윗용추다리」는 용추폭포의 상탕을 말한다. 시적 자아는 용추 상탕으로 가는 길이 험난함을, “머리 뒤끝 잡아당기는 것” 같고, “머리 끝 섬뚝섬뚝 서는 것” 같다고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가파른 낭떠러지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시인은 “금강경”을 넣고 갔을 것이다.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용추다리」에서 보여준 힘이 “호랑가시나무”나 “사자봉 벼락바위” 같이 걸음으로 드러나는 힘, 즉 권력으로 비유되었다면, 「윗용추다리」에서는 정신적인 힘을 말하고 있다. 그 힘이 바로 “금강경”이다. 「윗용추다리」에서 시적 자아는 자신이 읽은 대승불교 경전인 “금강경”의 번역자가 “용성 스님”²⁸⁾임을 굳이 밝히고 있다. 민족과 불교계의 지도자인 “용성 스님”의 이

27) 표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하기락 역,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도서출판 신명, 1993, 67쪽.

28) 용성 스님은 법호(法號)가 용성이다. 본명은 백용성(白龍城, 1864~1940)으로 한말·일제강점기의 승려이다. 1910년 한일합병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수행과 참선을 중심으로 한 삶에서 사바세계의 현실로 눈을 돌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용성 스님은 1년 6개월을 복역하다가 출옥한 후, 우리 민족이 불법에 귀의하여 민족의 위기상황을 극복

름자를 시 「윗용추다리」에 넣은 것은, “금강경”과 더불어 정신력의 중요함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금강경” 제5분에 나오는 “범소유상 개시허망”²⁹⁾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힘의 실체를 바로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은 산 1』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의 시편들에서는 저항의식의 아나키즘적 사고관이 의지와 다짐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김지하가 두타산을 하나의 관념만으로 시 창작을 한 게 아니라 두타산에 머무르면서 두타산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파행적인 질곡의 역사에 정면으로 응전하며, 그 극복의 길을 추구해 온 대표적인 시인이다. 두타산에서 죽임의 역사에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고자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과 닿아 있다. 이러한 문학세계는 죽임의 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응전과 저항의 대립구도에서 죽임의 세력까지도 순치시켜 포괄해내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단계로의 심화·확대로 파악된다.

3. 실존에 내재된 생명성

시에 있어서 공간은 중요하다. 그것은 공간이 시 세계와 시적 자아를 파

해야 한다고 제창하면서 대각사(大覺寺)를 창건하고 대각교(大覺敎)를 창설한 인물이기도 하다. 『인명사전』, 민중서원, 1998, 438-439쪽 참조.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97, 149-150쪽 참조.

- 29)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견여래(卽見如來)’는 ‘무릇 있는 바의 상(相)은 모두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뜻인데, 시적 자아는 이 가르침의 전 반부를 인유하고 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함을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함을, 그래서 진실을 볼 줄 알아 깨달은 사람들의 안목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볼 줄 안다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에서의 실상은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힘의 실체를 말하는 듯하다. 범륜, 『금강경 이야기』, 정토출판, 2000, 157-168쪽 참조.

약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간적 입³⁰⁾을 시사한다. 공간성은 존재와 인식의 질이자 결(texture)이 됨으로써 존재와 인식의 특정한 양상들을 생산한다. 그러다 보니, 두타산을 소재로 한 김지하의 시편들 속에는 시인이 겪었던 정황과 강박적 체험 등이 사회·역사적 환경과 결부하며 시적 담화를 형성하는 자아³¹⁾로 나타난다. 또한 자아와 세계,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는 시인의 실존이 두타산과 동질성을 이루며, 자신과 하나가 되는 존재감이다. 동시에 역사와 미래와도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감각을 가진 존재의 친근감이라 할 수 있다. 시적 자아와 두타산의 특수성이 동quet에 놓여 생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은 실체가 아니라 생성입니다. 그것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과 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변화합니다. 그것은 시공 생성의 원리이며 역易의 원리예요. 따라서 변화의 과학인 역학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변화한다는 것,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 첫째 정의일 수 있으며, '변화한다'는 그것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이 둘째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질서'로서의 생명은 반드시 눈에 보이고 고정되고, 들리는 '드러난 질서'로 즉 갖가지 생활 형식으로 물질화하되, 그 물질화된 형식 안에 한 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것, 그러므로 잠정적으로 물질화된 생활형식과 그 형식들의 이러저러한 관계로 미루어推 그 보이지 않는 생성변화를 짐작測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그것을 간략한 수數나 경우나 법칙들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세 번째 정의가 될 듯합니다.³²⁾

김지하에게 있어서 '생명'은 생성이다. '생성'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³³⁾ 『검은 산 2』의 재출간은 김지하가 두타

30)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2001, 155쪽 참조.

31) 일반적으로, 허구적 자아가 상상력과 창조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전략을 추구한다면, 자전적 자아는 실제 시인과 엄격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인과 동일시되는 화자를 말한다. 그러나 김지하의 자전적 자아는 허구적 자아의 특성까지도 함의하고 있는 듯하다.

32) 김지하, 『생명학 1-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 화남출판사, 2003, 67~68쪽.

산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 1981년에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두타산 무릉계곡에 머무른 김지하는 5년 후³⁴⁾인 1986년 『검은 산 1』을 출간한 후, “이 시집 이후 7·8년을 환상에 휩쓸려 큰 병”³⁵⁾을 앓다가, 『검은 산 2』를 재출간하였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두타산, 즉 ‘검은 산’에서 들려오는 “영(靈)의 소리와 찢어진 생명의 한(恨)의 울림”³⁶⁾이 그의 실존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재성(immanence)은 자신의 긍정과 파괴 속에서 자신의 형성과 발전을 구성하는 가능성 체제일 때 연결된다.³⁷⁾ 그래서 김지하는 “‘내림’이나 초혼(招魂)”³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 보인 것이다.

화살은 왜 나에게 떠 오나
 화살은 왜 나를 향해서 오나
 화살은 왜
 화살은 왜 내 가슴에 아프게 박히나
 화살은 왜 이 개울을 따라서 흘러 오나
 화살은 왜 물을 따라 흐르나
 화살은 물을 따라 나에게 오고
 나는 물을 따라 화살을 거슬러 가고
 너는 누구냐

33) 안토니 네그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2007, 534쪽.

34) 김지하는 1986년에 출간한 『검은 산 1』의 머리글에서 “5년 전 내가 무릉계에 갔을 때”라고 밝히고 있어서 그가 무릉계곡에 머무른 시점이 1981년임을 알 수 있다. 『검은 산 1』, 6쪽 참조.

35) 『검은 산 2』, 3쪽.

36) 위의 책, 같은 쪽.

37) 안토니 네그리·마이클 하트, 앞의 책, 476쪽.

“내재성(immanence)은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세계를 벗어나서는 어떤 합리성도, 이념도, 권력도, 도덕적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현실) 세계의 표면 위에 존재한다. 개념, 언어, 이념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속에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내재성이라고 한다.” 안토니 네그리·마이클 하트, 위의 책, 529-530쪽 참조.

38) 『검은 산 2』, 3쪽.

물.

-「화살내」 전문

번득이는 것이
 왜 빛뿐일까요
 번득이는 것이
 왜 눈뿐일까요
 번득이는 것이
 왜 절벽에 부딪쳐 부서지는 햇빛뿐일까요
 하늘에 가득 찬 총알 총알 총알
 그 구리의 빛은
 ... (중략) ...
 마지막 보이는
 삼화사 쇠 부처님
 아 아
 물방울.

-「피쏘」 부분

김지하는 『검은 산 1』의 머리글에서 “먼 북쪽 삼척³⁹⁾ 두타산 무릉계는 임진란 때는 수천 수만의 화살이 강물에 떠 흘러 ‘화살내’를 이루고 술한 사람의 피는 고여 ‘피쏘’라는 이름을 만든 곳”⁴⁰⁾임을 밝히고 있다. 그 자신 “스물세 살, 스물네 살의 시 안에 생명과 살해, 죽음과 살림과의 주제”⁴¹⁾가 들어 있었음을 고백한 바도 있는데, 이처럼 그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1964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가담하여 첫 투옥되었을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김지하는 피 흘린 역사 앞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이 진정 무엇이고, 그

39) 동해시는 1980년에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합쳐진 도시다. 김지하가 무릉계곡에 머문 때는 이미 행정구역 상 동해시로 편입되어 있었지만, 1980년 이전에는 무릉계곡이 삼척 땅이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40) 『검은 산 1』, 5-6쪽 참조.

41) 이어서, 그는 “그런데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숨어있는 차원의 이면적 주제가 표면적 주제로 떠올랐던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지하, 「시 쓰기 반백 년, 시는 흰 그들의 길」, 『비단길』, 시학, 2006, 296쪽 참조.

존재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사유를 보여준다. 「화살내」에서 “-오나”와 「피쏘」에서 “-까요”의 의문형 종결어미를 연거푸 나열하고 있는 데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존재의 모순성을 절감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화살’이나 ‘총알’은 모순된 인간 존재의 알레고리로 나타나 임진왜란과 배치하고 있다. 두타산 무릉계곡의 역사의 흔적이 시적 자아의 “가슴에 아프게 박히”고, “절벽에 부딪쳐 부서지는” 듯한 고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화살내」의 “물.”, 「피쏘」의 “물방울.”이 결미를 장악하면서 시의 주제를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상은 「쇠부처굴」에서는 “물방울 하나.”로, 「호랑바우」에서는 “내 신발 끝에 눈물과 함께 떨어지는데.”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시적 자아가 죽음으로 얼룩진 두타산 무릉계곡의 상처를 “물”로 씻고, 나아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코자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은 생명을 일깨우는 작용뿐만 아니라 생명변화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원소가 된다. 물은 모든 가능성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다시 물로 돌아가게 하는 순환의 길을 잃지 않을 때, 자연의 질서는 원활하게 진행된다. 한 개체의 생명이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성을 가지면서 순환해야 하는 것이다.

오컨대 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생명으로 환원하기 위한 현존제는 「화살내」나 「피쏘」 등의 시편들의 결미에서 “물”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물”은 피로 바쳐진 두타산 무릉계곡의 역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될 때 겪어야 할 생명의 의식을 상징하다는 점에서 통과제의의 성격을 띤다. 화자는 오늘날 탐욕으로 인해 변질된 인간 존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통과제의의 상징적 “물”로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김지하의 존재의식을 유추해 보자면, 시인에게 있어 죽음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 세계를 탈피한다는 데에 있지는 않다. 김지하 역시 한 인간으로서 인간 세계를 완전히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만 인간 세계를 초월한다는 그 심층적 의미는 인간 존재의 모순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아가 모순적 존재의 초월을 추구할 때 진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시인의 연표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물”은 김지하가 지향하는 생명성의 발현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의식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관심이며 친근감으로 드러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화해의 도정으로서의 생명성

김지하는 1986년 『검은 산 1』을 출간한 즈음인 “80년대 중반부터 민중시인 혹은 저항시인으로서의 위상을 넘어 생명시인 혹은 생명사상가로서 일대 전기를 마련했던 시인이다.”⁴²⁾ 그는 “생명, 생명성의 내적 구조인 ‘내부 공생endosymbiosis이란 것은 참여자들이 그 개별성identity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융합fusion”⁴³⁾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는 현존재의 본질이 파괴되지 않고 화해를 이루는 삶으로, 영성적인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물음에 대답할 자는 오직 하나—

모든 것을 아우르며 모든 것을 놓아주며 모든 것을 살아 뿔뿔이 하는 활동하는 무(無), 신명—

지금 여기 죽임당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솟구쳐 출렁거리며 모든 존재를 죽임에서부터 살려내고 인간의 사회적 삶과 내적인 삶,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무생물·물질과 기계까지도 거룩하게 드높이고 서로 친교하고 공생하고 해방하고 동일하여 ‘한울’로 살게 하는 가없는 저 화염의 바다, 그 약동하는 생명의 물결뿐이리라.⁴⁴⁾

42) 김선태, 「한국 생태시의 현황과 과제」, 『비평문학』 2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8, 19쪽.

43) 김지하,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지성사, 2005, 138쪽.

44) 『검은 산 1』, 14-15쪽 참조.

김지하는 모든 존재를 죽임에서부터 살려내는 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와 물질, 그리고 기계까지도 “서로 친교하고 공생하고 해방하고 동일”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한울”의 세계와 “화엄”의 세계를 이루어야 함을 요구한다. 물론, ‘한울’은 천도교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든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까지도 모두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화엄’의 세계, 즉 만행(萬行)과 만덕(萬德)을 닦아 덕과(德果)를 장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은 두타산의 역사, 나아가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풀어나갈 숙제에 대해 결론적으론 “생명의 물결”이라는 해답을 얻는다. 이것은 “생명 운동이 바로 죽임과 살림의 대결”⁴⁵⁾이라는 그의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잔잔한 풀 위에 바람 흔들림이
 이마 위에 그늘지는 것을
 알겠는가
 묻는 나는 모른다
 잔잔한 풀 위에 바람 흔들림이
 너의 머리 속에서 파고 있는
 흠의 뜻을 아는가
 피는 피를 부르고
 바람은 낮게 속삭이며
 물과 함께 먼 길을 가더라

내 눈에 타는, 밤새 타는
 이상한 핏발
 이제 나는 안다
 돌의 역사를
 돌의 신음의 역사를.

-「문간재」 전문

45) 김지하, 『생명학 1-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 화남, 2003, 253쪽.

고목에 기대 서서
 고목을 생각하자
 고목에 기대 서서만
 고목을 생각하자
 고목에 기대 설 때만
 고목을 생각하자
 불타 죽은 나무
 나무의 혼을.

-「고사목」 전문

「문간재」는 산성의 문(門)이 있던 곳이다. 이곳은 왜병을 감시하던 산성 입구로 피를 많이 흘렸던 장소이다. 불행한 역사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시적 자아의 내면은 “이마 위에 그늘지는” 것을 통해 형상화 된다. 이 시에서 시적 자아의 내면의식의 연원은 ‘바람, 그늘, 흙, 피, 핏발, 신음’ 등의 어휘들을 통해 방향성을 상실하고서 절망하는 불안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것은 곧 절망적인 현실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시적 자아는 “그늘”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자문해 본다. 하지만, 시적 자아는 이내 그것이 ‘원한’에서 온다는 해답을 얻는다. 이는 “너의 머리 속에서 파고 있는/ 흙의 뜻을 아는가/ 피는 피를 부르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이어서 시인이 이러한 역사가 영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물과 함께 먼 길을 가더라”고 토로한 부분에서, “이제 나는 안다”라고 외치는 부분에서 드러낸다.

이것은 시인이 “돌의 신음”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열망에서 오는 외침이다. 사실 ‘돌’은 ‘신음’ 소리를 낼 수 없는 무생물이다. 「문간재」에서는 돌이 자연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피 흘린 인간의 역사와 함께 남아 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문간재」의 결미에 와서 ‘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한다. 이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좌절로 인한 비극적 인식이 자연과의 화해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적 자아의 태도일 것이다. 「문간재」에서 “돌의 신음”에 생명을 부여한 것과 같이 시인은 「고사목」에서도 “나무”에 생명을 주고자 한다. 시적 자아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고목에

기대 서서”, “고목에 기대 서서만”, “고목에 기대 설 때만”이라고 강조한다. ‘기대다’는 것은 서로 힘이 되어 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언술은 시인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고사목과 인간의 구원을 향한 영원한 갈망을 적절히 연결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두타산」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던가”하고 화해의 도정을 위한 생명성은 걸음으로 드러나는 두타산의 실체가 아님을 토로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 중심, 곧 ‘마음의 실체’⁴⁶⁾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언술을 보더라도 인간은 두타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 중심에 놓여있다. 「두타산」에서의 “그리워한다”는 언술이나 「고사목」에서의 “기대 서서”라는 언술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할 화해의 도정이 그려진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가진 이원적 존재이다. 육체적 속성은 버리고 초월적인 세계의 자유를 갈망하는 시인은 죽음 체험 이후 ‘검은 산’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 이런 생명에 대한 자신의 의식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운명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절대 지상 철학이다/ 나는 이것을 두타산에서 배웠다”고, 고백한 그의 시 「두타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김지하의 『검은 산 1』의 제2부 ‘검은 산-무릉계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46) “……검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흰 담배연기 속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떠올랐다.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이였다. 그것을 새삼 깨달은 것이다. 시인이 무얼 하는 사람인가? 아! 나는 외쳤다. 내가 찾고 있는 해답이 나의 직업 안에 들어 있었다. 내 의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아무리 풀뿌리 지역운동, 생명운동을 하고 변혁운동을 해서 사회를 바꾸어놓는다 하더라도 ‘마음보’가, 정신이, 낫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였다.” 김지하, 『흰 그들의 길 3』, 학고재, 2003, 325쪽.

의 두타산을 지역적 범주로 창작한 시편들이다. 여기에 실린 13편의 시들은 그가 1980년 12월 출옥 후 처음으로 포착된 문학적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지역문학장의 시편들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지역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는 두타산 무릉계곡이 신성한 초월적 공간과 심미적 공간, 그리고 안식의 공간으로 간파되거나, 삶의 터전으로서의 개인적인 당면문제만 나타나고 있는데,⁴⁷⁾ 김지하의 시편들은 두타산 무릉계곡에서 자행된 '죽음'과 '죽임'의 역사에 생명성을 부여하였다.

민주투사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실존의 극단을 체험한 김지하는 제2부에서 두타산 무릉계곡의 참혹한 고통과 죽음의 역사를 저항의식의 아나키즘적 사고관으로 접근하였다. 파행적인 질곡의 역사에 정면으로 응전하며, 극복의지와 다짐의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김지하가 두타산을 하나의 관념만으로 시 창작을 한 게 아니라 두타산의 생명성에 귀 기울였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김지하에게 있어 죽임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 세계를 탈피한다는 데에 있지 않았다. 진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시인의 의지는 여러 시편의 결미에서 시어 “물”로 드러내었다. “물”은 피로 바쳐진 두타산 무릉계곡의 역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될 때 겪어야 할 생명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은 김지하가 지향하는 생명성의 발현이다. 생명으로 환원하기 위한 현존재는 두타산 무릉계곡의 역사가 새로운 존재로 전환될 때 겪어야 할 생명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하는 두타산의 역사, 나아가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풀어나가기 위한 답을 “생명의 물결”로 응축하고 있다. 이것은 죽임과 살림의 대결이 생명 운동이라는 그의 지론과도 맞닿아 있다. 초월적인 세계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는 죽음 체험 이후 ‘검은 산’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명에 대한 의식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 운명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생명은 소망을 갖고 있고, 또 그 소망을 위해 삶이라는 도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47) 권석순, 앞의 논문 참조.

요컨대, 두타산을 무대로 창작한 김지하의 『검은 산 1』의 제2부 ‘검은 산 - 무릉계에서’는 시인의 억눌린 삶의 궤적이 녹아져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두타산은 우리 시대의 수난기에 포착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나아가 두타산을 소재로 한 김지하의 시편들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생명운동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주제어 : 검은 산, 두타산, 무릉계곡, 죽임과 죽음, 아나키즘, 생명성

<참고문헌>

- 김지하, 『검은 산 하얀 방』, 분도출판사, 1986.
- 구승희,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 권석순, 「두타산의 공간화 전략」, 『비평문학』 3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9.
- 김선태, 「한국 생태시의 현황과 과제」, 『비평문학』 28호, 한국비평문학회, 2008.
- 김지하, 『검은 산 하얀 방』, 솔출판사, 1994.
- _____, 『생명학 1-생명사상이란 무엇인가』, 화남출판사, 2003.
- _____, 『흰 그들의 길 3』, 학고재, 2003.
- _____, 『생명과 평화의 길』, 문학과지성사, 2005.
- _____, 『비단길』, 시학, 2006.
- 남기택, 「생명권력 시대의 생태시론」, 『비평문학』 30호, 한국비평문학회, 2008.
- 박성중 편, 『東海市 地名誌』(동해문화원), 학연문화사, 2000.
- 박홍규, 『아나키즘 이야기』, 이학사, 2004.
- 법 률, 『금강경 이야기』, 정토출판, 2000.
- 손은진, 「열린 체계로서의 미학」, 『시와반시』 5, 시와반시사, 1993.
- 이형권, 「지역문학의 탈식민성과 글로컬리즘 : 대전-충남 문학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52호, 어문연구학회, 2006.
-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2001.
- 안토니 네글리·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2007.
-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 역, 『아나키즘의 역사』, 이룸, 2003.
- 포트르 알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 하기락 역,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신명출판사, 1993.
- Erik H. Erikson,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1968.

[Abstract]

The Life thought of 'A Black Mountain' in the Poems of Kim, Ji-ha

-Focused on A Black Mountain and a White Room-

Kweon, Seok-soon

Kim Ji-ha's collection of poems titled A Black mountain and a White room 1- Part 2 'A Black mountain-in the Mooreung Valley' sets a scene in Mt. Doo-ta, Donghae Si, Gangwon-Do. 13 poems in the collection are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Kim Ji-ha first captured the literary space after leaving prison in December, 1980, and they were not adjusted, touched and polished off by his dictation.

Kim Ji-ha who was a symbol of a fighter for democracy, and experienced existent extremes of 'passing' and 'killing' approaches the history of horrible pains and passing in the Mooreung Valley, Mt. Doo-ta through an anarchic viewpoint of the sense of Nihil and resistance in the Part 2. Facing the crippled history offeters, Kim Ji-ha showed the aspect of the will to overcome them and pledge, for he wrote poems with not an idea of Mt. Doo-ta but its vitality.

For Kim Ji-ha, the history of killing is only not to move away from the human world. The poet's will that he can be born again as a real being emerges as a poetic diction of 'water' in the end of many poems. 'Water' represents the life thought that has to experience when the blood history in the Mooreung Valley, Mt. Doo-ta is converted into a new being. Thus, 'water' is a manifestation of vitality that Kim Ji-ha aims. The present being for returning to the life represents the life thought that has to experience when the blood history in the Mooreung Valley, Mt. Doo-ta is converted into a new being.

Kim Ji-ha condenses a solution to the sad history of Mt. Doo-ta and further

of Korea as 'the wave of life.' This is in direct contact with his opinion that a confrontation between killing and saving is the life movement. He who desires a freedom of transcendental world meditates the meaning of life through 'Black mountain' after experiencing death. This life thought is to care about the life of the community beyond looking after oneself. As people are a living being, life has a wish, and they experience the polishing of life for the wish.

In short, Kim Ji-ha's collection of poems titled A Black mountain and a White room 1- Part 2 'A Black mountain-in the Mooreung Valley' that sets a scene in Mt. Doo-ta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they reflect the poet's trace of suppressed life, and Mt. Doo-ta is a captured space in a time of tribulation of our generation. Moreover, Kim Ji-ha's poems about Mt. Doo-ta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in direct contact with the life movement that he has consistently pursued.

【Key words】 : Black mountain, Mt. Doo-ta, Mooreung Valley, passing and killing, Anarchism, life

권석순

강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245-71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양학부

전자우편 : kssoon117@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4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5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